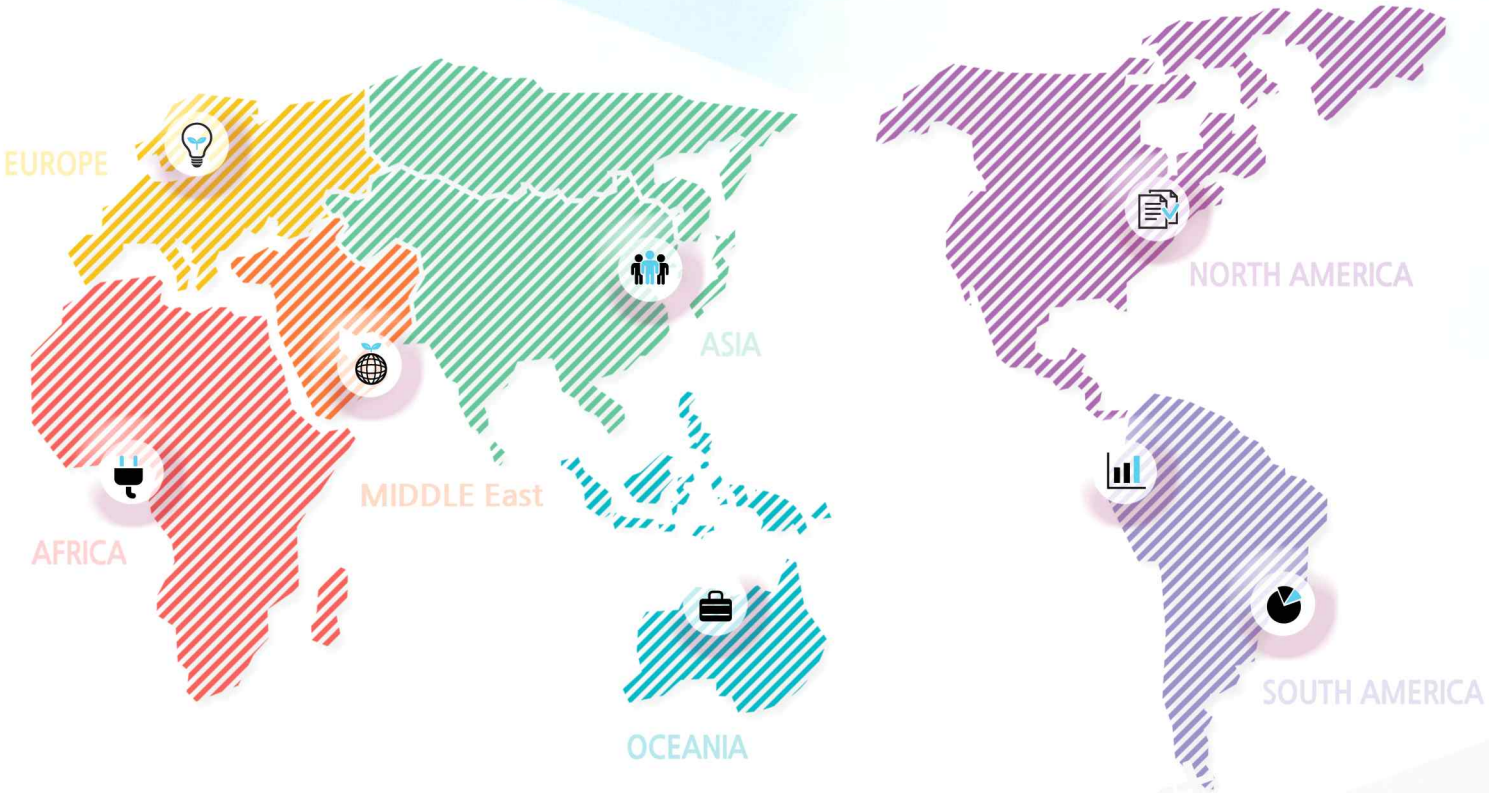
Global Market Report 15-025
2015.05.26



2015년 영국 총선 결과에 따른 정책방향 및 시사점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목 차

Ⅰ. 총선 결과 1

Ⅱ. 新정부 주요 정책 및 쟁점 사항 4

Ⅲ. 한-영 교역에의 영향 및 시사점 9

Ⅰ 총선 결과

□ 투표 결과

○ 2015.5.7.(목) 실시된 영국 총선 결과, 보수당이 단독으로 과반의석 확보에 성공하여 재집권이 확정됨.

- 선거 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보수당과 노동당이 초박빙 접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감.
- 노동당의 표밭인 스코틀랜드에서 스코틀랜드독립당(Scottish National Party: SNP)이 돌풍을 일으킨 데다 선거 막판에 보수당 지지층이 결집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보수당은 최종 331석을 확보(노동당 232, SNP 56, 자민당 8 등), 18년 만에 단독으로 구성된 정부수립에 성공

* 영국은 하원(House of Commons) 전체 의석 650석 중 절대과반인 326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고 당수가 수상(총리대신)이 됨.

<정당별 득표율 및 의석 수>

정당	당수	득표율(%)	의석수
보수당(Conservatives and Unionist Party)	David Cameron	50.92	331
노동당(Labour Party)	Ed Miliband	35.69	232
스코틀랜드 민족당(Scottish National Party)	Nicola Sturgeon	8.63	56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s)	Nick Clegg	1.23	8
민주연합당(Democratic Unionist Party)	Peter Robinson	1.23	8
신 페인당(Sinn Féin)	Gerry Adams	0.62	4
웨일즈 민족당(Plaid Cymru)	Leanne Wood	0.46	3
사회민주노동당(Social Democratic and Labour Party)	Alasdair McDonnell	0.46	3
영국 독립당(UK Independence Party)	Nigel Farage	0.15	1
녹색당(Green Party)	Natalie Bennett	0.15	1
얼스터 연합당(Ulster Unionist Party)	Mike Nesbitt	0.31	2
기 타		0.15	1
합 계		100.00	6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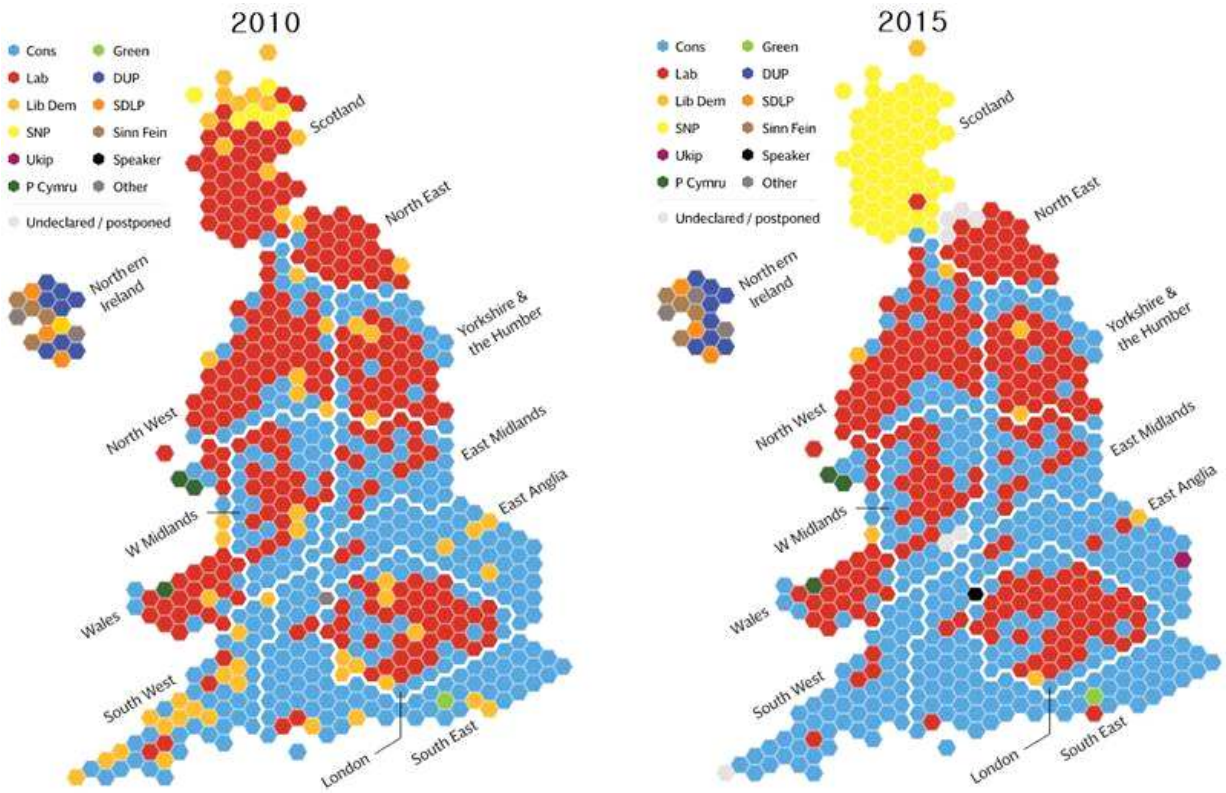
□ 선거 결과분석

○ 보수당, 자민당 표 흡수, 독립당과 SNP, 노동당표 흡수

- 총선 전 각종 여론조사기관은 자민당이 몰락하고 그 표가 노동당으로 갈 것이라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보수당이 흡수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주로 보수당 표를 잠식할 것으로 예상된 UKIP(독립당)은 노동당 우세 지역에서 강세를 보였고, 노동당은 텃밭인 스코틀랜드 의석을 SNP(스코틀랜드 독립당)에게 뺏김.

  * UKIP은 2석 확보에 그쳤으나 전체 득표율의 13%을 기록해 노동당에 큰 타격을 줌.

<2010년 2015년 총선 결과 비교>



주: 파란색(보수당), 빨간색(노동당), 노란색(SNP), 각 육각형 타일은 1개 선거구를 상징

○ SNP(스코틀랜드 민족당), 스코틀랜드 점령

- 이번 총선에서 보수당보다도 더 큰 수혜자는 SNP로 스코틀랜드의 59개 선거구 중 56개에서 승리, 이 지역은 사실상 1당 체제가 됨.
- 스코틀랜드는 전통적으로 노동당 지지 지역이었으나, 2014년 스코틀랜드 독립 주민투표 이후 독립을 추진했던 SNP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 데 대해 유권자들의 지지도 급상승함.
- 노동당에 反보수당 연대를 제안했던 SNP를 공개적으로 거부한 노동당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 스코틀랜드의 민심이 노동당을 버렸다는 분석도 있음.

○ 노동당의 명확한 타겟 및 공약 부재

- 집주인(Home Owners), 젊은 전문가(Young Professionals), 노년층 등 타켓을 명확히 설정하여 개개인의 이익과 직결된 공약을 펼친 보수당과 달리 노동당은 실체없는 공약이 많았다는 평가
- 노동당은 정통좌파로 돌아가 부유층의 증세를 내세웠으나 서민층에 이러한 공약이 실질적인 이득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주는 데는 실패
- 좌편향적 노선이 중산층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줬을 것이란 분석이 있으며, 가디언誌에 따르면 중산층이 집중된 지역에서 노동당보다 보수당이 2% 가량 높은 득표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 토니블레어 총리: "전형적인 보수정당과 전형적인 진보정당이 부딪히면 전형적인 결과가 나온다."
- 좌편향이면서도 경제 사안에서는 노동당 역사상 최초로 긴축재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최근 그리스,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 긴축재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당들이 패배한 전례가 있음.

○ '숨은 보수 표', Shy Tories(샤이 토리) 결집

- "Shy Tories"란 보수당을 지지하면서도 자신의 속내는 잘 밝히지 않는 이들을 지칭

  * 1992년 총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보수당이 노동당에 1% 뒤졌으나 실제 투표 결과 보수당이 7.6% 승리한 데서 탄생한 용어
- 보수당이 막판 민족갈등을 자극해(노동당 승리시 SNP와 연정해 영국이 휘둘릴 것이라는 공격), 잉글랜드 유권자들이 보수당으로 결집한 것으로 분석됨.

Ⅱ 新정부 주요 정책 및 쟁점 사항

□ 주요 정책

분류	주요내용
경제	○ 이번 정부 집권 말까지 적자 해소 및 흑자 전환 ○ 보조금 지원 축소로 확보한 예산으로 청년 취업기회 창출 ○ 완전고용 목표 및 창업 대출 지원 ○ 유럽연합 탈퇴 관련 국민투표 실시 <EU 탈퇴 관련> - 2017년까지 국민투표를 실시 영국의 EU 잔류 여부 결정 - 영국 경제와 유로존의 통합 속도 제한 - EU 인권법을 영국권리장전으로 대체
세금	○ 40% 이상 세율 부과기준을 기존 42,385 파운드에서 5만 파운드로 상향조정 ○ 15만 파운드 이상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부담분 비과세 혜택 폐지 ○ 100만 파운드 이하 재산에 대한 상속세 폐지 ○ 최저임금으로 주당 30시간 근로 시 소득세 면제 입법 추진 ○ 주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 소득세 면제 ○ 소득공제액을 물가상승률이 아닌 최저임금 상승률과 연동(공제액 상승)
국방·외교	○ 최신 군사장비 구입 및 예비군 병력증대를 위한 예산을 매년 1% 이상 확대 ○ 250억 파운드를 투자, 영국이 보유한 핵잠수함 4대를 교체 ○ 신형 항공모함 2차 실전 배치 ○ 시리아와 이라크의 평화를 위한 노력 전개 ○ IS 퇴치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이민	○ 총 이민자 수를 수백만 명에서 수만 명으로 축소 ○ EU 이민자가 복지혜택이나 공공지원주택을 받으려면 4년 대기 ○ 이민자에 대한 실업수당 금지 ○ 영국에 거주하지 않는 이민자의 가족에 대한 육아수당 지급 중단

에너지	○ 온실가스 배출 목표 강화 및 녹색 투자은행(Green Investment Bank) 기능 제고 ○ 에너지기후변화부(DECC) 확대 개편을 통한 기후변화 분야의 역량 강화 ○ 국가 인프라 정책에 있어 에너지 효율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 ○ 경쟁당국(CMA)의 전력시장 불공정 경쟁여부 조사결과에 따른 권고 조치사항 이행 ○ 북해 석유개발 지원정책 유지 및 셰일가스 개발 지원 ○ 신재생에너지 분야 유망기술 개발 촉진 ○ 2015년 말로 예정된 기후변화 협상시 보다 강화된 합의 도출추진 (국내에서도 기존 기후변화법을 충실히 이행) ○ 육상풍력 관련 보조금 지급 중단
복지	○ 120억 파운드의 복지저축 목표 설정 ○ 2년 동안 생산연령의 복지수당 동결 ○ 가정 복지수당 총액 제한을 26,000 파운드에서 23,000 파운드로 감축 (이를 통해 확보한 세수로 300만여 개의 견습직 제공) ○ 가정보조금 감축 및 18~21세에 대한 주거보조 폐지
주택	○ Right to Buy : 임대주택 거주가구에 30% 할인된 가격으로 주택 구매 기회 제공 ○ 생애 최초 부동산 구매자의 경우 신규 주택 20만 호를 20% 할인가격 적용 ○ 부동산 구매지원 종합자산관리계좌(Help to Buy ISA) 운용
보건	○ 2020년까지 NHS(무상의료시스템)에 80억 파운드의 추가 재원 투입 ○ 주말 진료 서비스 제공 ○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필요할 경우 당일 진료 실시
교육 · 육아	○ 학교 감사결과 수준 미달인 경우 강한 개혁 추진 ○ 2020년까지 500개 자율학교 추가 설립 ○ 2세 장애아동에 대한 15시간 추가 보육지원 ○ 3, 4세 자녀를 둔 근로가정에 주당 30시간 무료 보육서비스 제공

□ 주요 쟁점 사항

○ EU 탈퇴(Brexit[1)]) 국민투표

-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보수당은 EU 탈퇴를 묻는 對국민투표 시행을 공약으로 내세움에 따라 이번 선거 결과로 2017년 말까지 국민투표 실시가 기정사실화됨.
- 보수당은 선거승리의 기세를 이어가고 비즈니스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단 시일 내에 협상과 투표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음.
- 한편으로는 이민자 문제 등의 민감한 사안을 확실하게 매듭짓기 위해 2017년까지 기다릴 수도 있음.
- 보수당 각료와 의원들은 EU 탈퇴 캠페인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 투표권 부여범위, 예산규모 및 투표용 설문의 어휘 선택 등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임.
- EU 내 영국의 지위와 관련된 EU와의 재협상이 성공을 거둘 경우 사람들은 EU 탈퇴보다 현상유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
- 설혹 주민투표로 인해 영국이 EU 탈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더라도 영-EU 특별 상호무역협정 등을 통해 단일시장으로서의 이점은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스코틀랜드 문제

- SNP가 중앙의회에서 56석이나 확보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어 스코틀랜드 주권을 강화하려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잉글랜드 측의 반발 및 대응(잉글랜드 독자의회 설립안 등)으로 양측간 대립이 심화될 경우, SNP는 이를 이용해 독립을 재추진할 것이 확실시됨.
- 니콜라 스터전 SNP당수는 영국의 EU 탈퇴에 반대 입장을 확고히 표명한 바 있어, EU 탈퇴 국민투표 실시와 영국을 하나의 공동체로서 유지한다는 두 가지 상반된 정책을 약속한 보수당이 향후 큰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됨.
- 과거 '그린란드 조약'을 통해 덴마크령이 된 그린란드가 국민투표에 이은 EU법 개정을 거쳐 EU를 탈퇴한 선례가 있는 만큼,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스코틀랜드가 EU에 남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님.

1) 영국을 뜻하는 "Britain"과 탈퇴를 뜻하는 "Exit"를 조합,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함.

○ 복지 축소

- 보수당은 총선 공약으로 중앙정부 예산(Whitehall[2] savings)을 300억 파운드로 확충하기 위해 복지예산에서 120억 파운드를 추가 감축할 예정
- 보수당 내부에서도 완만한 감축과 대폭 감축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어 120억 파운드 규모의 복지예산 감축은 실패가능성이 높아 보임.

○ 공항 및 고속전철

- 영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항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 부상
- 보수당은 공항확장 문제와 관련 특별한 공약을 내세우지는 않았으나 올 여름 공항위원회의 보고서가 발표되면 이와 관련된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동 보고서에서 개트윅과 히드로공항 중 하나를 확장하자는 제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나 프로젝트에 착수하기까지 수많은 법적 문제가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보수당은 북부지방의 표를 얻기 위한 공약으로 500억 파운드 투자가 필요한 런던-맨체스터-리즈 간 고속 전철노선을 개통하려는 계획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 약속함.
- 보수당의 정치적 기반지역(Tory Heartlands[3]) 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공약대로 고속철 계획은 계속 진행되겠으나, 정부부채 감축계획의 압박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 선거구 개편

- 보수당은 오랫동안 불균등한 선거구 크기를 균등화하려는 시도를 해왔으며 2011년에 이미 승인을 얻어냈으나 자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음.
- 하지만 이번 총선을 통해 자민당의 도움 없이 단독정부를 구성하게 되어 2018년 예정된 재심의에서 이변이 없는 한 선거구 개편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임.
- 현재 650명의 의석수가 600명으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일부 보수당 의원들도 의석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이나, 최종적으로는 이번 선거보다 40여석 정도 추가의석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향후 총선에서 노동당이 과반을 차지하기는 매우 어려워질 전망

2) Whitehall은·총리관저, 재무부, 해군부 등의 관청이 들어서 있는 거리로, 영국의 정치 중심지임.
3) Tory Heartlands란 보수당 텃밭지역이자 런던과 버밍엄을 연결하는 고속철(HS2)이 관통하는 지역임. HS2 사업은 그간 고속철도 건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류개선 등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과 자연경관 훼손 등을 내세워 반대하는 입장간의 대립으로 중단과 추진을 반복해 온 사업임.

○ 국방 및 외교

- 캐머런 총리는 상비군 추가 감축은 없을 것이며, 군용장비 관련 국방예산을 최소 1% 확대키로 약속함.
- 잠수함 교체 등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안은 부채압박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지만, 국방 관련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수당 의원들이 다른 사안에 대해 제동을 걸 것이기 때문에 예산 증대에 관한 약속은 이행될 것으로 보임.
- 텔레그래프誌는 보수당 정부는 스코틀랜드와 EU 관련 이슈로 인해 향후 몇 년간 내부 이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대외 이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

Ⅲ 한-영 교역에의 영향 및 시사점

□ 한-영 교역현황

○ 2014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수출 57억 달러(+22.4%), 수입 74억 달러(+20.2%) 기록

○ 2015년 1~3월 중 우리나라의 對영 수출은 11억 달러, 對영 수입은 13억 달러로 2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 기록

<한-영 무역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1~3월
수출	금 액	4,969	4,897	4,727	5,785	1,175
	증감률	-10.5	-1.4	-3.5	22.4	-30.6
수입	금 액	3,818	6,360	6,194	7,442	1,343
	증감률	16.9	66.6	-2.7	20.2	-50.9
무역수지		1,151	-1,463	-1,467	-1,657	-168

자료원 : 한국 관세청

□ 2015년 교역 전망

○ 2015년 1분기 수출입 감소는 총선 등 경기불안 요소의 영향으로 판단되나 이후 보수당 단일정부 집권으로 영국 경제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하반기에는 교역이 증가할 전망

- 現정권 유지로 '13년 4월부터 시행중인 150억 파운드(25조원) 규모의 신규주택 구매 지원정책(New Buy Deal)이 지속되어 한국산 건설기자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한-EU FTA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가 '14년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상반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교역은 증가할 전망

- 한-EU FTA에 따른 식품(8%→0%) 및 섬유류(6.4%→0%) 등 관세 인하로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짐.

□ 우리기업의 시사점

○ 보수당의 단독정부 구성에 따른 재집권으로 영국 시장은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對영 진출에 호기로 분석됨.

* 보수당 재집권 기대를 반영하듯 외환시장에서는 미국 달러 대비 파운드 가치가 1% 상승한 1.54 달러(5.7일 기준)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 기록

○ 現정부 정책에 따르면 의료, 국방 및 교육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기기/서비스, 방산, 교육 부자재 등 관련 수출업체들에게 좋은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임.

○ 장기적으로는 영국을 구성하는 4개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간 조세환경과 산업규제가 상이해지고, EU 관계변화 리스크가 상존하는 등 이러한 이슈와 관련된 규제변화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는 지방분권을 통해 자체 의회와 함께 중앙의회(웨스트민스터)에도 의석을 차지하고 있음. 이 때문에 보수당은 잉글랜드만의 독자의회 제정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 경우 중앙의회가 유명무실해지고 영국 내 4국의 "자치 확대"로 조세, 산업 규제 등이 상이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끝.

작성자

◈ 런던무역관 안지성 과장
◈ 선진시장팀 이연주 차장

Global Market Report 15-025

2015년 영국 총선 결과에 따른 정책방향 및 시사점

발 행 인 ▌ 김재홍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5년 5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Global Market Report

www.kotra.or.kr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